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통령의 존재 이유와 검찰 개혁의 본질

김 형 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조국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은 자못 크다.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부를 통치한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 통합을 이뤄 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을 토대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꿈꾸는 대통령의 표상에 대해 다양한 약속을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진영 논리에 따른 이념적 대립으로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검찰청 앞에서는 진보 진영이 주최한 '조국 수호' 대규모 군중집회,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 진영이 총동원되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줄곧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조국이 먼저다'로 방향을 튼 것일까. 이러다 보니 문 대통령을 향해 '하조대 대통령'(하루 종일 조국 장관만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별명마저 생길까 봐 걱정될 정도다. 항간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조국 수사를 막아야 할 무슨 절박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이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과 도덕, 윤리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길 요구한다.

다음 질문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개혁과 관련 심각한 모순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의심하는 듯하다. 윤석열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민주당조차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최고 적임자'로 치켜세웠지 않았는가. 더구나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권은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니까 '개혁 저항' '정치 검찰' '과잉 수사' '고의적 피의 사실 유출' 등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국 임명 반대'와 '조국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수천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조국 파면' 시국 선언을 하고, 서울대 등 수 많은 대학생들이 '조국 아웃'을 외치며 촛불 집회를 여는 현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근 KBS 여론 조사(10월 26-27일) 결과,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지나치지 않다'(49%)는 의견이 '지나치다'(41%)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허용돼야 한다'(64%)는 의견도 '금지돼야 한다'(24%)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을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 아닌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 관행 등과 관련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진행돼야 진정성이 담보된다.

단언컨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별개다. 개인 조국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이제 진보는 폐쇄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각종 의혹으로 진보를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린 조국을 맹목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의 미래가 보인다.

※편집자 주: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칼럼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하는 이유

임 형 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여름철이 되면 다른 계절에 비해 몇 배 많은 독서를 한다. 아마도 유년 시절 아래채에 큰 대문을 열어 대나무 밭에서 부는 솔바람의 길목에 평상을 펴놓고, 혼자만의 책 읽기를 즐겼던 그때의 습관이 이어져 여름철에 유독 다독을 하게 된 것 같다. 지금부터 이번 여름에 읽었던 '청소력'이라는 책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청소력'의 저자는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서두를 시작한다. 청소를 하는 것은 더러워진 자리를 단순히 반복적으로 뒷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청소로 인하여 어떤 에너지(力)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장 박동 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한다.

저자는 1969년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매우 흥미 있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의 법칙'의 실험이야기를 소개한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 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둔다.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닛만 열어 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 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 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지 겨우 10분만에 배터리가 없어졌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 뿐인데도, 오물을 버리거나 약탈, 파괴 활동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실험이었다.

필자는 책을 덮고 두 가지로 책의 메시지를 적용시켜 보았다. 먼저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구로 클로즈업시켜 보았다. 거대한 환경 운동보다 먼저 길 위에 버려진 휴지를 줍고 흙에 썩지 않은 비닐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긴급하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각자 내면의 방을 매순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순식간에 오염되어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분노로 변하여 영혼은 금방 파괴되어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결과 아름다웠던 자연은 계속 파괴될 것이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갈등으로 싸움과 전쟁을 반복하여 서서히 우리의 지구와 영혼은 침몰하는 배처럼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다. 인간의 영혼에 가득 찬 탐욕의 쓰레기 더미인 죄악을 비우고 청소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려면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낮은 곳은 과부와 고아들과 병든 자들이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머무시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잠언서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낮아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 29:23) 기록하여 영혼의 비움과 청소의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한다. 필자를 비롯한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공적 세상과 높아짐은 추구하나, 빈들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인생은 크고 위대한 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을 무시하고 방치함으로 손실과 재난의 후유증은 앓고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 정돈하는 단순하고 작은 행동과 이웃에게 전달되는 따뜻한 배려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 고

클래식이 만난 '민주', 뮌헨의 가을을 물들이다

윤 신 향
독일 쾰른대학교 음악학 박사

옥토버 축제로 부산한 뮌헨의 가을, 뮌헨 시민들의 문화복합공간 가스타이크 칼 오르프 홀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있었다. 세계 정상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이 요세프 바스티안의 지휘 아래 합동 음악회를 연 것이다.

요세프 바스티안은 지난 여름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를 이끈 바 있다. 프로그램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윤이상의 '교착음향'(1961), 김대성의 교향시 '임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민주'(民主·Democracy), 그리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 장조 KV 218과 베토벤의 로만차 제 2번 F 장조로 구성되었다. 바이올린 협연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제 2 바이올린 악장 이지혜가 맡았다. 탄탄한 경력과 연주력으로 국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 이지혜의 협연이 클래식에 친숙한 청중 확보에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가스타이크의 칼 오르프 홀이 거의 꽉 찼다. 음악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포들도 눈에 띄었다. 프로그램의 한 축은 현악의 향연이었다. 처음 연주된 윤이상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착음향'은 그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각 악장에 동양 악기(호궁, 거문고, 양금)의 이름이 붙어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각 악기의 주법을 각 악장마다 서양의 악기로 옮긴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음향의 재료 특성을 '콜로이드'라는 화학 용어 그대로 '접착'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3악장에서는 '양금'의 소리가 접착되었다기보다는, 처음 제시된 음향의 재료 특성을 한 단계 발전한 차원에서 듣게 되는 것이다. 윤이상의 1960년대 초반의 작품은 연주하기에도, 듣기에도 쉽지 않은 어법으로 되어 있지만, 바스티안은 현악 주법만이 가능한 이러한 재료 흐름을 무리 없이 잡아주었다.

음악회는 김대성의 교향시 '민주'에서 절정에 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티브를 관현악의 다양한 색채로 변주시키면서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작곡자의 기량, 바스티안의 해석과 합동 교향악단의 연주가 청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대성은 김남주의 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의 싸움은'과 망월동에서 직접 읽은 묘비문 "민주주의의 신새벽으로 부활하여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즉, 작곡자가 체화한 '님을 위한 행진곡'에 그 고유의 상상력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작곡가의 고백대로 "민주를 음악으로 그린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만큼 힘든 일"일 터이다. 클래식을 꽃피우고 민주 헌법을 완성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한때 좌초했던 역사를 들지 않더라도, 자율 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윤리적 가치와 늘 부합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곡자는 '민주의 새벽'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을까? 곡의 중간에 등장하는 애잔한 플루트 독주는 우선 분노의 에너지를 일단락시킨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한동안 관현악의 드라마를 증폭시키더니, 팡파레와 흡사한 관악기의 마지막 주제 선율이 청중을 전혀 다른 장면으로 유도한다. 여기서 어떤 청중은 죽은 '임'이 살아 있음을, 어떤 청중은 '아름다운 민주의 새벽', 적어도 그 기운을 상상했다면 전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 교포들이 받은 감동의 무게는 후자에 더 있었던 것 같다. 청중의 대부분은 분노와 고통, 노래의 박진감을 궁극에는 극적으로 반전시킨 관현악의 감성적 팔레트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순수 절대음악이 표현하지 못하는, 민주를 염원하는 작곡자의 '마음'과도 멀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도 남는다. 한 편의 영화 음악을 방불케 하는 김대성의 교향시가 음악회 마지막에 울려 퍼졌다면, 음악회의 의의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지혜의 '클래식' 연주도 한층 더 돋보였을 것이다. 또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한 음악회였던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과 창작곡 '민주'(民主·Democracy)에 대한 충실한 해설이 있었다면, 독일 청중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곡자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김남주의 시와 묘비문의 내용은 '클래식'을 들으러 온 청중들에게 좀 더 색다른 느낌을 남겨 주지 않았을까.

社 說

정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의지 있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현안인 '문화적 도시환경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입된 국비는 계획 대비 83.6%에 이르지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807억 원 대비 13.9%인 1915억 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침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문화산업 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다. 민자 사업 투입률은 전체 1조7337억 원 대비 4.6%인 7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민자 사업비가 3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228억 원에 그치고 있다. 민자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재정 지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됐음에도 광주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홀대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이유가 가장 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이 '문화전당만 지었을 뿐 광주의 문화적 성장은 없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문화수도 조성 사업 차질의 가장 큰 요인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책 사업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광주시 '청년몰'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정부의 '청년몰' 사업이 유독 광주에서 외면받고 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에 청년 점포를 입주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청년 창업 유도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사업에는 모두 337억 원이 지원됐다.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에 점포를 운영 중인 청년 상가는 현재 전국에 349개가 있다. 하지만 광주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 중인 청년몰이 한 군데도 없다. 청년몰 지원 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곳은 세종시와 함께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가 처음부터 청년몰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양동 수산시장과 남광주 해뜨는시장이 청년몰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임대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상인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만나 청년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야 했지만 아예 손을 놓았다. 담당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노력과 비교하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청년몰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청년몰의 휴·폐업률은 26%에 달한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청년 창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1913송정역시장과 서울 망원시장 청년 점포의 성공 비결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無 等 鼓

갤러리와 소음

2012년 1월 10일 미국의 뉴욕 링컨센터 에이버리 피셔 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뉴욕 필의 말러 교향곡 9번이 4악장 클라이맥스를 지나 섬세한 선율이 흐르는 순간. 객석 맨 앞줄 노신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타악기 '마림바' 소리였다. 지휘자 앨런 길버트는 연주를 중단하고 소동이 끝날 때까지 3~4분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연주를 이어 갔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벨소리 에티켓 확산의 계기가 됐다.

관람객들의 소음은 골프대회에서도 자주 문제가 된다. 2017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PGA 투어 CJ컵 1라운드에서 선수들은 티샷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갤러리들이 앞다퉈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토머스가 '노 카메라, 노 플래시'를 외쳤지만 소음은 계속됐다.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등도 휴대전화 플래시와 소음 때문에 갤러리와 종종 신경전을 벌였다. 선수들은 임팩트 순간 갤러리의 셔터 누르는 소리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고 한다. 샷의 리듬이 깨져 미스 샷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 경북 오픈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김비오도 그랬다. 티샷이 빗나간 것이다. 그는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성난 팬심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우승을 했음에도 KPGA는 그에게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 골프의 맏형 최경주는 "선수는 갤러리가 많으면 당연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도 유난히 경기 때마다 방해하는 악성 갤러리가 있었다면서 '이제 끝났냐?' 물어보고 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갤러리들에게 휴대전화 지참을 허용한다면 사진 찍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팬이 없는 선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람 문화도 중요하다. 팬들은 무심코 한 자신의 행위가 한 선수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새겨야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33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